

새만금청, 새만금수목원 조성 협력 강화로 지역 상생 발전 모색

- 내년 새만금수목원 개원을 앞두고 관계 기관 협력 방안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6월 9일 국립새만금수목원 사업 현장에서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국립새만금수목원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에 조성하는 151ha 규모의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 이날 참석 기관들은 개원을 앞둔 새만금수목원의 사전 홍보와 운영 전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상생하고 발전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또한, 수목원 지역 상생 사업*과 더불어 새만금 국가정원과 녹지축 조성, 새만금 입주기업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업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업무협약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 지역농가 위탁계약재배, 기술개발보급지도 등을 통한 신규 소득기반 및 일자리 창출
-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7월 관계 기관들과 ‘지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생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새만금 지역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새만금 지역에 조성될 새만금수목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지역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면서,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만금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민수 (063-733-1320)
		담당자	사무관	최광걸 (063-733-1326)
			주무관	최종주 (063-733-1327)